

교회:

부서:

이름:

예수교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

청소년 공과

제 12 권

대부분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항해할
깃발로 여기지만, 산상수훈을 조종하는
방향타로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올리버 웬델 홈즈



인생의 바다를 어떻게 항해 할 것인가?

KAFC 출판부

주제: 산상수훈(성도의 윤리강령)

순서	청소년 공과
제 144 공과	누구의 컴퓨터인가?
제 145 공과	예기치 못한 반응
제 146 공과	빛나는 빛
제 147 공과	요건 충족
제 148 공과	어려운 결정
제 149 공과	금식과 기도
제 150 공과	가장 중요한 것
제 151 공과	하나님은 항상 공급해 주신다
제 152 공과	판단 착오
제 153 공과	한 가지 중요한 요구 사항
제 154 공과	황금률
제 155 공과	잘못된 길
제 156 공과	반석 위에 집을 짓다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KAFC(한국 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 복사 및 수정, 배포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기초를 구성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가르침에서 친숙한 말씀 중 하나는 산상 수훈입니다. 산상 수훈은 마태복음 5 장부터 7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할 열두 명의 제자를 택하신 후, 그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자신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2 권의 목적은 산상 수훈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 장부터 7 장 말씀에는 다양한 주제가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를 뽑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12 권 공과 본문에는 산상 수훈 말씀 외에 다른 성경 구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과 함께 산상수훈의 주제를 더 강조하면서 각 말씀의 주제는 공과 제목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공과는 겸손과 겸손의 영적 가치를 다룹니다. 마태복음 5 장의 처음 다섯 구절은 겸손이라는 주제 이외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12 권 안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12 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배운 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144 공과 누구의 컴퓨터인가?

성경본문: 마태복음 5:1-5; 8:5-10; 이사야 29:19; 57:15

요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10)

데미안과 링컨은 컴퓨터 안에 있는 가는 전선, 칩, 수많은 다른 부품들을 연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링컨, 여기에 점프하고, 그다음에...” 데미안이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굽히면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데미안, 나는 네가 다른 걸 고쳐야 한다고 말한 줄 알았어.” 링컨이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힘들겠어. 다른 부품을 사서 다시 만들어 보자. 너 부품 살 돈 있니?” 데미안이 물었습니다.

“응. 있어. 컴퓨터 가게에 가서 부품을 사자.”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컴퓨터 가게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은 작업대 위에 "두뇌 아이"라고 이름을 붙인 새로 만든 거의 완성된 컴퓨터인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데미안은 링컨에게 자기 아이디어를 시험해 보고자 과학 발명품 대회에 새로 만든 컴퓨터를 출품하고자 그를 설득하였습니다.

데미안과 링컨은 매우 다른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자신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지만, 데미안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그는 조간신문 배달을 했고 방과 후에는 컴퓨터 가게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가게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컴퓨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데미안은 링컨이 컴퓨터를 만들어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무심결에 내뱉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데미안은 링컨의 말을 듣고, 그가 결코 혼자서는 시작할 수 없는 컴퓨터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링컨을 도와주면서 컴퓨터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되었습니다.

데미안과 링컨이 컴퓨터 가게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데미안이 말했습니다. “링컨,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 선을 여기에 연결해야 해. . .” 데미안이 전선을 연결하자 컴퓨터가 작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와, 우리가 해냈어!”

그다음 며칠은 컴퓨터의 버그를 해결하고 프로그래밍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요일 오후 링컨은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새롭게 만든 컴퓨터를 차에 싣고 과학 발명품 대회 장소로 컴퓨터를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링컨을 도와 발명품 대회 장소로 컴퓨터를 옮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컴퓨터 스위치를 켜지만,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대회가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링컨은 긴장한 나머지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고,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불안하였습니다. 그는 컴퓨터 안에 연결된 선을 눈으로 살펴볼 뿐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이었을까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데미안이 와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미안은 6 시에 컴퓨터 가게 일이 끝납니다. 과학 발명품 출품 대회는 7 시에 시작합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을 짓는 링컨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링컨의 아버지는 링컨에게 말하였습니다. “링컨. 네가 이 컴퓨터를 만들었다면 분명히 네가 고칠 수 있단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링컨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빠. 데미안이 만들었어요. 저는 컴퓨터 부품을 사는 것을 도왔고, 그가 부탁한 일을 했을 뿐, 이 컴퓨터를 만든 건 데미안이에요.” 그는 말을 멈추고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데미안이에요. 과학 발명품 신청자에 내 이름이 아니라 데미안의 이름이 적어져야 해요.”

“데미안이 오면 컴퓨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니?” 링컨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데미안이 오면 1 분도 안 걸리고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링컨은 탁자 위에 있는 참가 신청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자신의 이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는 밑줄 위로 데미안 로페즈라고 적은 후, “참가자 이름: 데미안 로페즈” 라고 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링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이제 우리는 데미안을 데리러 가야지. 그가 이것을 고칠 수 있으면 좋겠구나.”

잠시 후 링컨은 데미안이 느슨해진 연결선 부위를 능숙하게 만져 컴퓨터를 완벽하게 고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링컨은 데미안을 보면서 생각하였습니다. ‘데미안은 정말 대단해.’ 링컨은 컴퓨터를 만드는 데 자신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분명 내가 만들 것이 아니라 데미안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링컨은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것을 깨닫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6:55: 컴퓨터가 소리를 내며 잘 작동하였습니다.

9:15: 심사위원단은 “1 등 데미안 로페즈의 컴퓨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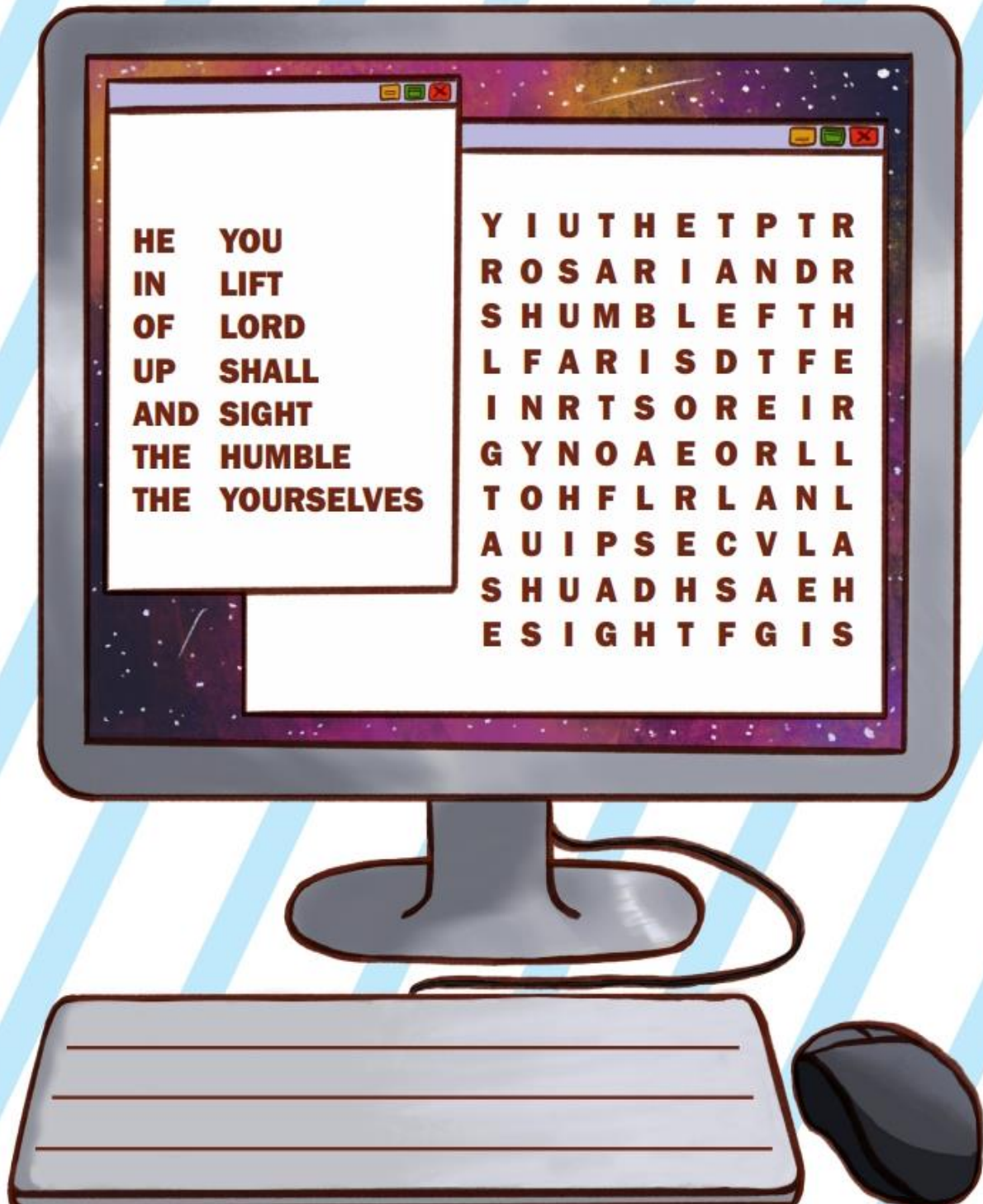
9:17: 데미안은 심사위원들과 함께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상장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컴퓨터는 링컨과 함께……”

관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데미안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Lesson 144 A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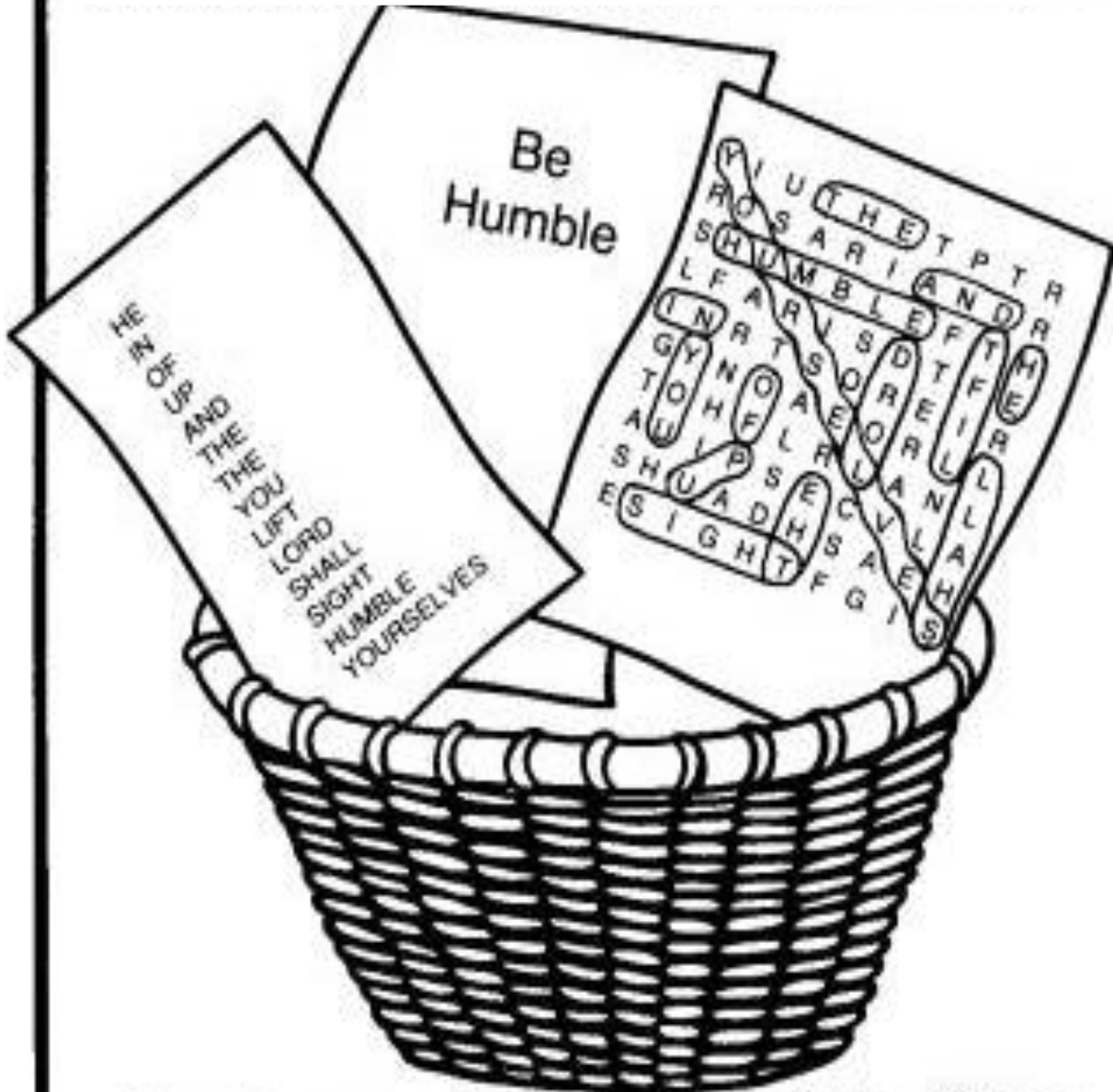
**ARE YOU
HUMBLE?**

Humility is having a modest and submissive spirit. The key verse tells what God will do for you if you are humble. The words listed make up the key verse. Find them in the word-find below and circle them. They read up, down, across, and diagonally. When you are done, see if you can write out the key verse on the lines below without looking it up.



겸손합니까?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요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래 단어를 오른쪽 알파벳 판에서 찾아 요절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Humble yourselves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he shall lift you up.

제 145 공과 예기치 못한 반응

성경본문: 마태복음 5:6-9, 38-48; 18:23-35

요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36)

"이봐, 오늘 베컴이 가지고 있는 것 좀 봐!" 스쿨버스 안에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신형 닌텐도 3DS가 있었으면 좋겠어."

베컴은 돌아서서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어깨 너머로 손이 뻗어와 자신의 게임기를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여기, 미카, 이거 잡아!" 누군가가 베컴의 게임기를 공중으로 날려 버스 뒤쪽으로 던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카는 게임기를 잡지 못했고, 게임기는 의자 좌석에 부딪혀 스쿨버스 통로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베컴은 그것을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새 닌텐도 3DS!'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서진 케이스와 부서진 조각들을 찾는 동안 버스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게임기를 던진 헌터 김슨은 버스 통로 건너편 좌석에 털썩 주저앉아 베컴이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헌터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스쿨버스에 게임기 가지고 타면 안 되잖아."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학생은 혹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두 소년을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베컴은 자기 가방 안에 부서진 물건을 넣은 후 건너편에 있는 헌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내 게임기를 망가뜨리려는 한 건 아니었잖아."

그 순간, 헌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헌터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았지만, 스쿨버스가 링컨 중학교 앞에 멈춰 섰고 학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베컴은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 공기 소총이 생겨서 과녁을 맞추는 연습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스트 47 번가에 있는 넓은 들판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한쪽 끝에 총알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두꺼운 울타리가 있어서 공기 소총을 연습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두 개의 강통을 세우고 총을 장전했습니다.

그가 쏜 첫 두 발이 빗나갔습니다. 그는 총이 움직이지 않고 과녁을 더 잘 맞추기 위해 큰 바위를 버팀목으로 사용한 후 었드렸습니다. 이제 그는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 총을 잡았습니다. 그는 총을 발사하였습니다. 또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워 두었던 강통이 떨어졌습니다.

베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표물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기 위해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화난 얼굴을 한 남자가 울타리 옆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봐, 젊은이! 이리 와 봐!”

베컴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생님?”

“그래, 너 말이야! 여기서 총을 쏘는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나? 네가 우리 집 부엌 창문으로 총을 쏘어!”

“네? 오, 안 돼!” 겁에 질린 베컴이 말했습니다. 그는 과녁 옆에 총을 내려놓고 힘없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근처에 집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울타리가 총알을 막아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글쎄, 그렇지 않았어.” 남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총을 사용하기 전에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겠군. 그럼, 누가 우리 집 창문 비용을 지불해야 겠나?”

베컴이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 정말 죄송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창문이 워낙 커서 100 달러는 넘을 것 같군.”

베컴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가지러 집에 가야겠어요. 제 이름과 주소를 적어 드릴게요. 한 시간 뒤에 다시 와도 될까요? 저의 공기 소총은 두고 갈게요.”

“그렇게 하게.” 남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너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고 가게.”

베컴은 총을 들고 남자와 함께 갔습니다. 베컴은 그의 집 앞에서 그가 종이와 펜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베컴은 그가 건네준 종이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후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베컴이 그곳을 떠나려고 몸을 돌렸을 때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잠시만! 베컴 티니. 너 링컨 중학교에 다니니?” 베컴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 헌터도 그 학교에 다닌단다. 헌터 김슨. 나는 네가 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베컴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버스 안에서의 사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알겠구나.” 그는 웃으면서 말을 이어 갔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너의 닌텐도 게임기를 망가뜨린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니?”

베컴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헌터가 그 이야기를 했나요?”









“며칠이 지난 후에 그때 일을 말했단다. 헌터가 너의 게임기를 망가뜨렸는데 네가 화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단다. 사실, 헌터는 아직도 네가 화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너도 알다시피, 헌터는 네가 망가뜨린 게임기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말 놀라워

했단다. 네가 정말 친절하다고 생각했지. 나는 우리 집 창문이 깨진 것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게. 깨진 창문 수리는 헌터가 도와줄 거야.”

헌터의 아버지는 베컴이 닌텐도 게임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깨진 유리창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과에서 성경 본문은 정반대의 예를 제공합니다. 빛을 탕감 받았지만, 그에게 돈을 빚진 사람에게 빛을 갚으라고 요구한 하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않는데 우리는 자비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Lesson 145 Activity
BE LIKE JESUS

As Christians we are to be like Jesus and show mercy to others. What were the results when Jesus' mercy was added to the situations listed below? Look up the texts and write your thoughts on the lines provided.

 <p>THIEF ON THE CROSS</p>	+	<p>Jesus' Mercy (Luke 23:39-43)</p>	=	
 <p>TWO BLIND MEN OF JERICO</p>	+	<p>Jesus' Mercy (Matthew 20:29-34)</p>	=	
 <p>JAIRUS' DAUGHTER</p>	+	<p>Jesus' Mercy (Luke 8:49-56)</p>	=	
 <p>ZACCHAEUS</p>	+	<p>Jesus' Mercy (Luke 19:1-10)</p>	=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아래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THIEF ON
THE CROSS



+ JESUS'
MERCY =
(Luke 23:39-43)

He received
eternal
life in
Heaven.

TWO BLIND MEN
OF JERICH0



+ JESUS'
MERCY =
(Matthew 20:29-34)

Their sight
was restored
when Jesus
touched them.

JAIRUS'
DAUGHTER



+ JESUS'
MERCY =
(Luke 8:49-56)

The girl
was restored
to life
that day.

ZACCHAEUS



+ JESUS'
MERCY =
(Luke 19:1-10)

Zacchaeus
was saved
that day.

제 146 공과 빛나는 빛

성경본문: 마태복음 5:14-16; 다니엘 6:1-28

요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엘리야는 토요일부터 식료품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을 시작하기 전 매우 긴장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함께 일할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좋아했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함께 일하게 될 모든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점심 식사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침대 옆에 앉아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것으로 초조해하고 있지? 어쩌면 그의 동료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고, 알았다 하더라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자신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일단 이것에 대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주님은 내가 몇 분 전에 생각했던 것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사람들 앞에서 점심 식사 감사기도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날을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놀리게 된다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걱정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엘리야는 토요일 오전 시간이 새로운 일에 적응하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몇 분 전에 그의 동료 중 한 명인 콜린이 사과 상자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몰며 엘리야를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 상자를 농산물 판매대에서 내려놓고 휴게실로 갈게요. 혹시 점심 준비해 왔어요?” 엘리야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그럼 휴게실에서 만나요.”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엘리야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그는 긴장된 마음을 숨기기 위해 방금 물건 싣는 것을 끝낸 다른 여자 동료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옆에서 일을 하는 책에게 점심을 먹으러 갔다 오겠다고 말을 한 후 휴게실로 갔습니다.

몇 분 후 그는 휴게실에 콜린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점심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그는 점심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드린 기도 중 가장 훌륭하고 간절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점심 감사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한 처음 기도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기 전에 주변의 고요한 정적을 감지하였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콜린과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두 남자는 재빨리 시선을 돌려 그들이 준비한 도시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를 시작했고 잠시 후 그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점심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엘리야는 마음속으로 만족감을 느끼며 오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장애물을 통과했습니다.

몇 주 후 콜린은 퇴근 시간에 엘리야와 함께 식료품 가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와, 하루가 벌써 지나가는구나, 그렇지? 사람들이 식료품을 빨리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면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엘리야, 나는 네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또한, 네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

엘리야는 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콜린,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콜린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네가 입사한 첫날 점심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알았어!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너를 보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했지.”

엘리야는 자신이 인도나 페루로 가서 훌륭한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Lesson 146 Activity

THIS LITTLE LIGHT OF MINE

Figure the answer for each math problem on some scratch paper. Then find the letter that matches your answer on the flashlight and write the letter on the line above the math problem. The first word has been done for you.
By solving this puzzle you will find out what you are when you are following Jesus.

Y E
7+7 3-3 1+2 8+4 4-4 9+4 4+3 6-6 8+1 19-3 3+3 6+1 11+2 9+1 1+1

15-2 9-2 0+0 16-1 5+5 9+3 7+2 2+2 2+1 3+2 8+8 9+4 8+6

8+5 9-2 5-2 14-1 8+8 15-4 6+5 3-3 10+3 6+4 10-9

6-3 3-2 10-3 19-3 5+4 12-3 3+2 6-3 7-6 15-14 14-4 9+4

6+2 8-8 3+4 10+6 3+1

0 = E

1 = N	2 = F	3 = A	4 = D
5 = C	6 = G	7 = H	8 = B
9 = L	10 = O	11 = S	12 = R
13 = T	14 = Y	15 = W	16 = I

나의 작은 빛

수학 문제에 해당하는 답과 일치하는 알파벳을 찾아 밑줄 위에 적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Y E A R E T H E
 $\frac{7+7}{14}$ $\frac{3-3}{0}$ $\frac{1+2}{3}$ $\frac{8+4}{12}$ $\frac{4-4}{0}$ $\frac{9+4}{13}$ $\frac{4+3}{7}$ $\frac{8-8}{0}$
L I G H T O F T H E
 $\frac{8+1}{9}$ $\frac{19-3}{16}$ $\frac{3+3}{6}$ $\frac{6+1}{7}$ $\frac{11+2}{13}$ $\frac{3+1}{4}$ $\frac{1+1}{2}$ $\frac{15-2}{13}$ $\frac{9-2}{7}$ $\frac{0+0}{0}$
W O R L D A C I T Y
 $\frac{16-1}{15}$ $\frac{5+5}{10}$ $\frac{9+3}{12}$ $\frac{7+2}{9}$ $\frac{2+2}{4}$ $\frac{2+1}{3}$ $\frac{3+2}{5}$ $\frac{8+8}{16}$ $\frac{9+4}{13}$ $\frac{8+6}{14}$
T H A T I S S E T O N
 $\frac{8+5}{13}$ $\frac{9-2}{7}$ $\frac{5-2}{3}$ $\frac{14-1}{13}$ $\frac{8+8}{16}$ $\frac{15-4}{11}$ $\frac{6+5}{11}$ $\frac{3-3}{0}$ $\frac{10+3}{13}$ $\frac{6+4}{10}$ $\frac{10-9}{1}$
A N H I L L C A N N O T
 $\frac{6-3}{3}$ $\frac{3-2}{1}$ $\frac{10-3}{7}$ $\frac{19-3}{16}$ $\frac{5+4}{9}$ $\frac{12-3}{9}$ $\frac{3+2}{5}$ $\frac{6-3}{3}$ $\frac{7-6}{1}$ $\frac{15-14}{1}$ $\frac{14-4}{10}$ $\frac{9+4}{13}$
B E H I D
 $\frac{6+2}{8}$ $\frac{8-8}{0}$ $\frac{3+4}{7}$ $\frac{10+6}{16}$ $\frac{3+1}{4}$

0	1	2	3	4	5	6	7
E	N	F	A	D	C	G	H
8				9	10	11	12
B				L	O	S	R
				13	14	15	
				T	Y	W	
				16			
				I			

147 공과 요건 충족

성경본문: 마태복음 5:17-20; 로마서 8:3-4; 갈라디아서 3:19-29

요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17)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율법으로 가르쳤습니다. 비록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할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결합한 동물 희생은 죄에 대해 속죄할 수 있습니다. 이 희생은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에 대해 속죄하실 때를 미리 알려 주었습니다. 3000 년 전 조샤와 같은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 어떻게 속죄했는지 살펴봅시다.

조샤는 먼지가 자욱한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는 초조한 손으로 바구니를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비둘기 두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전 가까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가 할 의례적인 말을 연습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 부음을 받은 제사장님,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속죄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조샤는 목이 타는 목구멍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르는 것을 자주 보았지만 지금까지 자기 혼자 성전에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겨우 2 주 전에 그는 성년이 되었고 그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남자로 여겨졌습니다. 어렸을 때 그의 죄는 그의 부모님에 의해 속죄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잘못과 속죄의 책임이 그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는 좁은 성전 뜰 가장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3 일 전, 그는 아버지의 양 떼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양 떼를 몰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길을 가는 도중에 그의 이웃 게하시엘의 소가 길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하시엘은 불의한 사람이었고 조샤는 어린 시절부터 그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에 의하면 길을 잃은 소를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양 떼를 몰고 그곳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 그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이 자기를 대신하여 속죄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죄를 해결할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조샤는 13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조샤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돌가마에서 갓 구운 뜨거운 빵조차도 그의 식욕을 돋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그는 자리에 누워 자신이 저지른 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안절부절 못하고 몸을 뒤척이자, 그의 형은 그에게 가만히 누워 있거나 나무 밑에서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형제들과 부모님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조샤는 억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도대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조샤는 더 비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 생각하던 조샤는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그는 저녁 식사 후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은 조샤는 자신의 죄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네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제사장 앞에 가서 네 죄에 대해 속죄해 달라고 청하는 것은 네 책임란다.” 조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아버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아들이. 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열납되도록 제사에 관한 계명을 지켜야 한단다.” 그의 아버지는 조샤에게 제사에 대한 규례를 하나하나 주의 깊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이 마치자 자기 아들의 어깨에 팔을 얹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는 네가 내일 너의 죄에 대해 슬퍼하며 제사장 게르손에게 갈 거라고 믿는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주셔서 너의 희생 제사를 받아 주실 거야.”

드디어 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조샤는 재빨리 성전 뜰을 지나 성전 입구에 섰습니다. “제사장님, 제사장님” 그가 소리쳤습니다.

제사장 게르손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조샤가 말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장에게 말하였고, 자기 잘못에 대해 고백하였습니다. 조샤는 죄의 짐을 벗기 위해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은 조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너의 죄를 대신하여 집비둘기 두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제사장은 조샤가 내민 바구니에서 집비둘기 두 마리를 자세히 살피며 흠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들을 당신의 제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제사장이 조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새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이 새에게 나의 짐을 지운다고 말씀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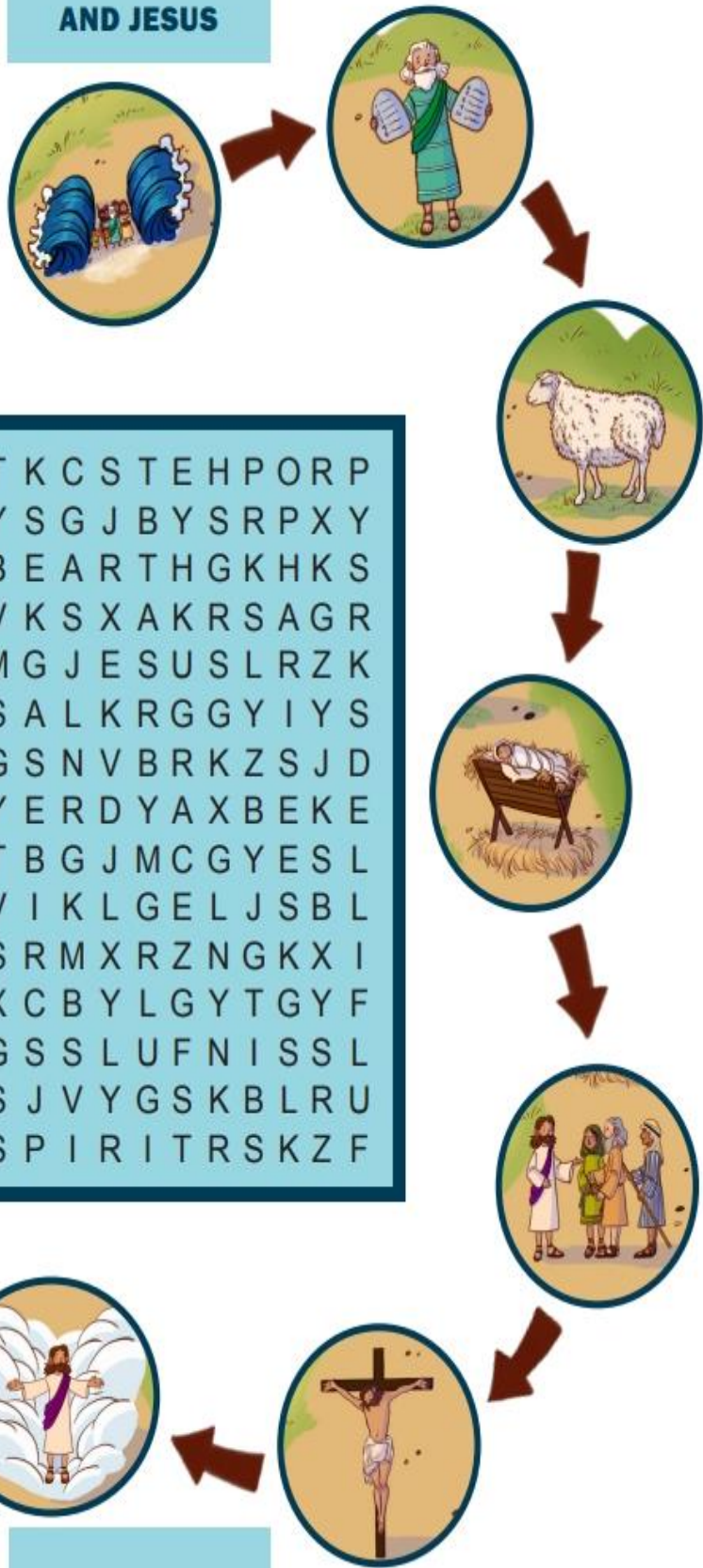
Lesson 147 Activity

THE LAW AND JESUS

The main purpose of the Mosaic Law was to point to Jesus Christ, who would fulfill that Law and lead people to Himself. The words on the list below pertain to the Law and Christ. Find them in the puzzle and circle them. Remember, they may read up, down, forward, backward, and diagon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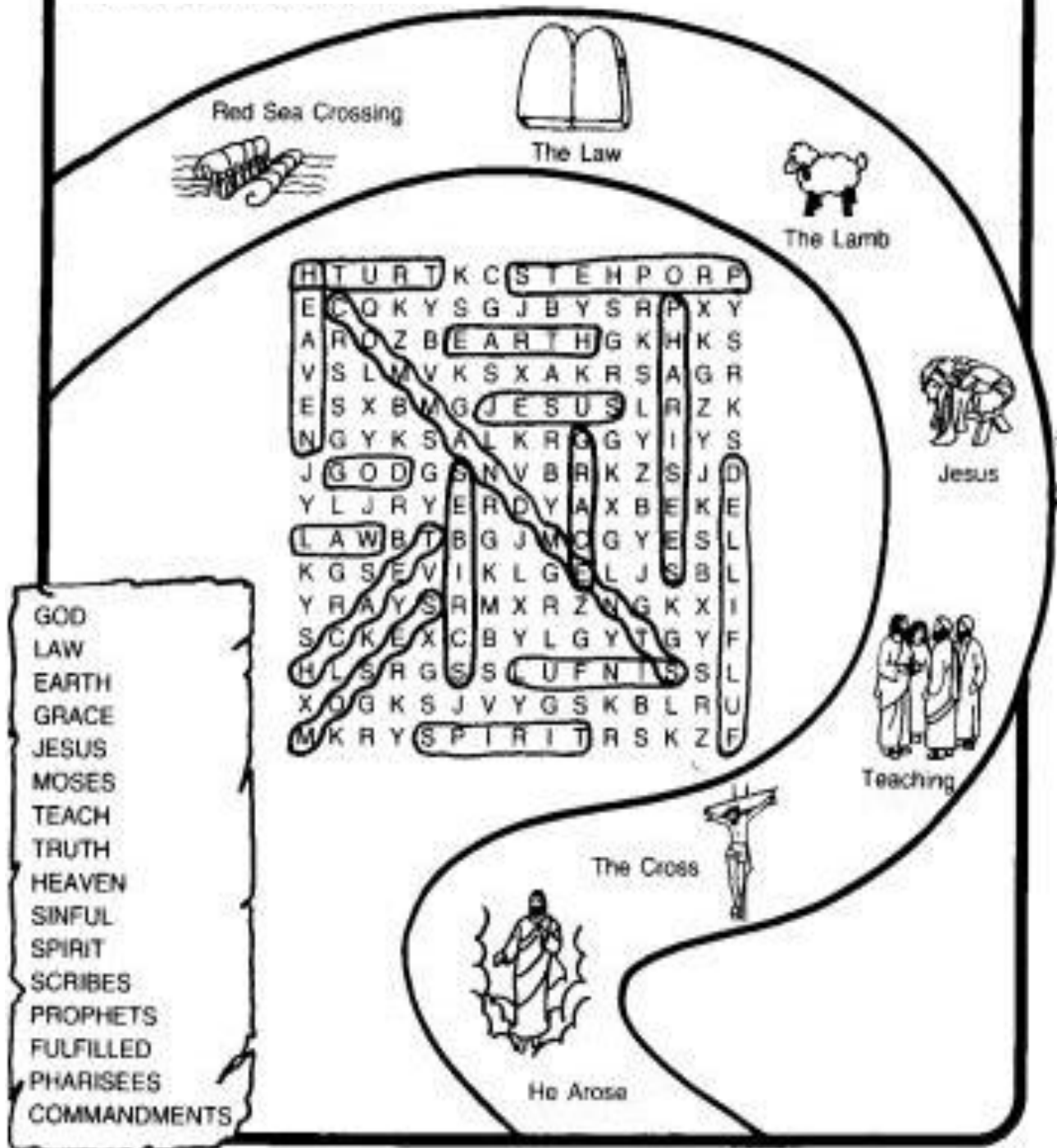
GOD
LAW
EARTH
GRACE
JESUS
MOSES
TEACH
TRUTH
HEAVEN
SINFUL
SPIRIT
SCRIBES
PROPHETS
FULFILLED
PHARISEES
COMMANDMENTS

H	T	U	R	T	K	C	S	T	E	H	P	O	R	P
E	C	Q	K	Y	S	G	J	B	Y	S	R	P	X	Y
A	R	O	Z	B	E	A	R	T	H	G	K	H	K	S
V	S	L	M	V	K	S	X	A	K	R	S	A	G	R
E	S	X	B	M	G	J	E	S	U	S	L	R	Z	K
N	G	Y	K	S	A	L	K	R	G	G	Y	I	Y	S
J	G	O	D	G	S	N	V	B	R	K	Z	S	J	D
Y	L	J	R	Y	E	R	D	Y	A	X	B	E	K	E
L	A	W	B	T	B	G	J	M	C	G	Y	E	S	L
K	G	S	E	V	I	K	L	G	E	L	J	S	B	L
Y	R	A	Y	S	R	M	X	R	Z	N	G	K	X	I
S	C	K	E	X	C	B	Y	L	G	Y	T	G	Y	F
H	L	S	R	G	S	S	L	U	F	N	I	S	S	L
X	O	G	K	S	J	V	Y	G	S	K	B	L	R	U
M	K	R	Y	S	P	I	R	I	T	R	S	K	Z	F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모세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성취하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아래 단어들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퍼즐에서 아래 단어들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제 148 공과 어려운 결정

성경본문: 마태복음 6:1-4; 고린도후서 8:1-15

요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8)

해리슨은 농구공을 드리블했습니다. 쿵, 쿵, 쿵. 텅 빈 체육관에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몇 걸음 더 나아가자, 그는 자유투 라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다음 자유투 샷. 그가 해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찰리에게 공을 패스했습니다. 그는 공을 조심스럽게 찰리에게 주었지만, 공은 찰리를 지나갔습니다.

해리슨이 공을 드리블했습니다. 쿵, 쿵, 쿵. 텅 빈 체육관에 또 소음이 울려 퍼졌다. 몇 걸음 더 나아가자, 그는 자유투 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샷. 그는 해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찰리에게 공을 패스했습니다. 공은 또 찰리의 손을 지나갔습니다.

“찰리, 더 빨리 움직여야 해. 공이 가는 방향을 보고 오버 슈트해야 해. 그러면 손을 뻗어도 균형을 잃지 않을 거야. 패스 다시 해 볼게.”

해리슨은 미니 코트에서 공을 되찾아 다시 패스했습니다. 찰리는 휠체어의 무게에도 굴하지 않고 이번에는 온 힘을 다해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공은 그가 공을 잡기도 전에 그의 가슴에서 튕겨 나갔습니다.

찰리는 해리슨과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즐겁게 지냈습니다. 해리슨은 건강한 14 세 소년의 넘치는 에너지로 농구 코트 뛰어다녔고 찰리는 휠체어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찰리는 겨우 7 살이었을 때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지난 7 년 동안 그가 겪은 좌절감은 드리블과 골을 넣는 기쁨 속에서 다소 잊혔습니다. 지난 6 개월은 농구로 인해 즐겁게 지냈습니다.

지난가을 그는 장애인 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일반 중학교는 장애인 학교와 달리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찰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짓궂게 대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해리슨은 친절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해리슨은 학생회장이었고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찰리는 그의 행동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해리슨은 올해 초부터 찰리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였고 그의 우정은 돈독해졌습니다.

둘 다 농구를 좋아해서 오늘은 찰리의 패스 캐치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찰리는 스페셜 올림픽에 참가할 때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습마다 그는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날 밤 해리슨이 집에 돌아온 후 그는 파커로부터 전화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리슨은 농구공을 부엌 입구에 내려놓고 파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파커?" 해리슨이 파커의 목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해리슨,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 삼촌이 후드산에 있는 오두막을 빌렸어. 우리는 금요일 오후에, 거기에 가서 주말 내내 스키를 탈 수 있어. 너의 엄마한테 우리 삼촌이 우리와 같이 가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얘기해 볼래? 해리슨, 나랑 같이 갈 수 있지?"

"글쎄, 생각해 볼게." 해리슨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파커, 나중에 내가 다시 전화해서 확실하게 알려줄게."

해리슨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는 무엇을 고민하는 것일까요? 그의 가족은 그가 간다고 하면 허락해 줄 것이었습니다. 파커의 삼촌이 자신들을 잘 지도해 줄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리슨이 이번 토요일에 찰리와 농구 연습을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스페셜 올림픽에 가기 전 연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가 찰리에게 주말에 여행을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어머니는 해리슨이 곤란해하는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해리슨은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해리슨," 그의 어머니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연습이 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니? 나는 찰리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 맞아요. 찰리는 분명 이해해 줄 거예요. 사실, 내가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면 그는 여행을 갔다 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야?"

"엄마, 찰리는 저 말고 같이 연습할 사람이 없어요. 농구 연습은 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냉장고 모터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리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Lesson 148 Activity

**WHAT CAN I
GIVE?**

The giving of alms means doing kind deeds. It is done without expecting a reward. Think of at least one thing you can give to someone using the things mentioned below. Write your ideas on the lines in the boxes.

MOUTH

HANDS

HEART


TIME

FEET

THE SERMON ON
THE MOUNT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자선을 베푸는 것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래 네모 칸에 적어보세요



Time:

Mouth:

Heart:

Feet:

Hands:

제 149 공과 금식과 기도

성경본문: 마태복음 6:5-8, 16-18; 17:14-21

요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21, KJV 흠정역)

얼마 전 뉴펀들랜드섬에 사는 한 젊은 부부가 셋째 아이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고통이 수반된 심한 피부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병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들이 아이를 위해 행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과 손과 발은 피가 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의 붉고 망가진 피부를 보면서 그의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평생, 이 병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었지만, 그가 학교에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함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또한, 그의 반 친구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그녀의 병든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그 소년을 위해 그녀와 함께 기도했지만, 병의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심한 병에 너무 괴로워 어느 날 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고쳐주신다면 제 목숨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얼마 후 부활절에 그의 아버지는 놀랍게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여전히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년의 병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 월의 어느 주일 아침, 아버지는 아들과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그를 불렀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예수님께 저를 낫게 해주시기를 금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나의 병이 치료되기를 기도했지만 나는 여전히 병을 앓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기쁘게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먼저 내가 노력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병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병이 치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깨끗하게 낫게 해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다.’

그리스도인은 필요할 때 금식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온전히 기도하기 위해 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날, 금식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 말씀하실 때 “금식하면”이 아니라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기도에서 승리하는 수단으로 금식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금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영으로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뉴펀들랜드에 사는 어린 소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금식하고 기도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그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금식과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훌륭한 모범에 대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해 주시고 고통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POWERFUL TOOLS

Use the letters that are in the spaces to find two words. Write the words in the spaces below.



M U S T A R D S E E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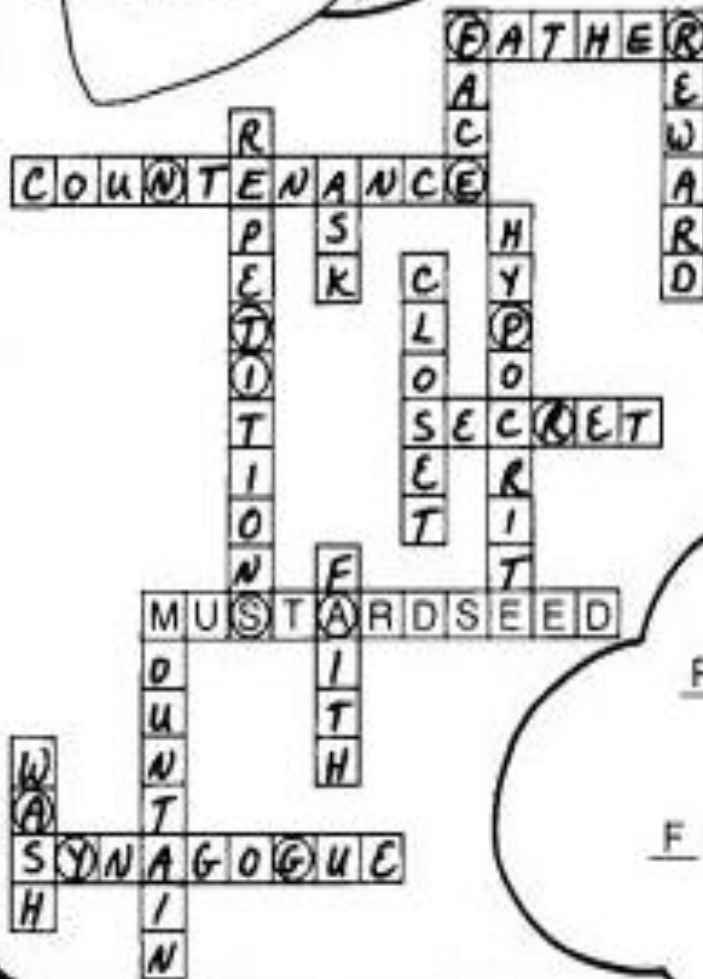
A
AND
S

SYNAGOGUE
COURTNEY
MUSTARDSEED
REPETITIONS

강력한 도구

아래 단어들을 퍼즐에 넣어보세요. 동그라미 속
알파벳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되는 강력한 도구 두 가지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ASK
FACE
WASH
FAITH
CLOSET
FATHER
REWARD
SECRET
MOUNTAIN
HYPOCRITE
SYNAGOGUE
COUNTEenance
MUSTARDSEED
REPETITIONS



P R A Y E R
AND
F A S T I N G

제 150 공과 가장 중요한 것

성경본문: 마태복음 6:19-21; 누가복음 12:13-21

요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20)

"백사십팔, 사십구, 오십!" 의기양양하게 엘리는 마지막 1 달러 지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드디어 해 냈어요. 아빠!"

그녀의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가 열심히 저축하더니, 드디어 자전거를 살 수 있겠구나. 내일 학교 끝나면 자전거 사러 가자."

그 이후 몇 주 동안, 엘리는 새로 산 자전거를 타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용돈을 저축하였고, 이웃을 도와주며 돈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자전거를 자신이 모은 돈으로 살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전거를 구입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그녀가 가졌던 기쁨은 끝이 났습니다. 자전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밤중에 누군가가 현관 난간에 자전거를 고정한 체인을 끊고 자전거를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엘리와 그녀의 아버지는 오후 내내 차를 몰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자전거를 찾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월요일에 좀 더 찾아보자." 엘리의 아버지가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자전거를 가져간 사람이 며칠 동안 사용하고 어딘가에 두었을 수도 있으니깐."

엘리는 월요일에 자전거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가지 않았던 남쪽으로 운전하면서 자전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엘리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럴 수가! 아빠, 저기 좀 보세요" 엘리는 오래된 벽돌 건물 뒤뜰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차를 주차하고 엘리와 함께 그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던 자전거 대신 구부러진 핸들, 찢어진 의자, 납작해진 타이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에 누가 나의 새 자전거를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내가 이것을 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잠시 후 엘리의 아버지는 망가진 자전거를 지하 작업실로 옮겼습니다. "정말 안타깝구나, 엘리." 엘리의 아버지는 망가진 자전거를 고치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자전거를 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엘리는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감추기 위해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엘리는 거실 테이블에 있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신문에는 존스 씨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엘리의 아버지는 예술품과 보물을 모으고 투자로 막대한 재산을 가진 존슨 씨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아침 식탁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제럴드 존슨은 멋진 집, 최고의 자동차, 멋진 미술품 수집 등 이 땅에서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 나는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천천히 좀 하라고 충고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던단다. 이제 그는 죽었지만, 그의 모든 보물은 이 땅에 남겨져 있구나. 그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단다.”

엘리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일지라도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 천국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엘리는 소파에 앉아 지하 작업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엘리는 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보물을 얻은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보물? 자전거가 보물일까? 자전거에 영원한 가치가 있을까? 엘리는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작업실로 갔습니다.

“아빠, 저는 존스 씨와 나의 새 자전거, 나의 우선순위, 천국에 있는 보물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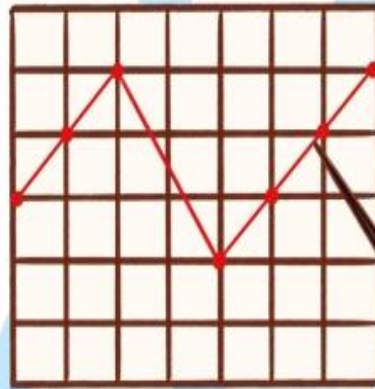
그녀의 아버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생각할 게 참 많은 주제지, 엘리.”

“나의 새 자전거가 이렇게 된 것이 속상하지만, 자전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엘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Lesson 150 Activity

HOW DO YOU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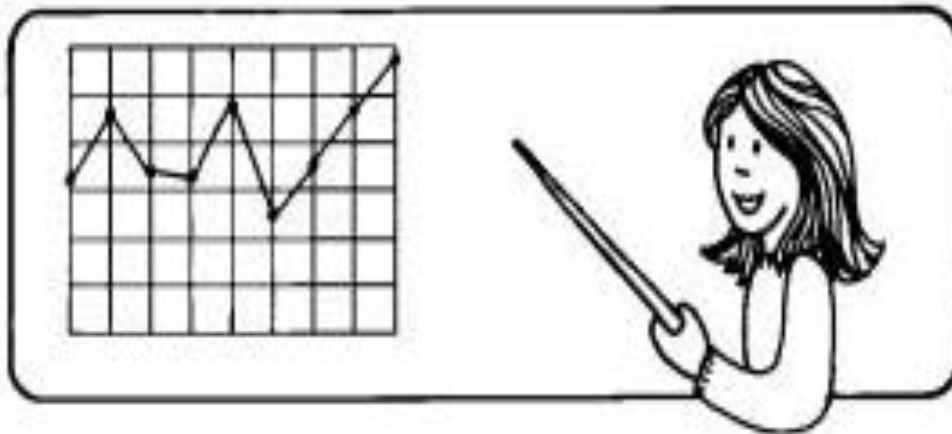
Have you ever seen those charts that show if the stock market has gone up or down? See the example on the right. Let's see how you rate in heavenly investments. Use the large graph below and answer each question. Draw a short line between each answer (up or down) to show where you stand.



Do you ...	Believe in God?	Love Jesus?	Read your Bible?	Believe the Bible?	Pray?	Witness?	Love your enemies?	Forgive?	Have patience?	Respect others?	Attend Sunday school?
Always											
Sometimes											
Seldom											
Never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합니까?

여러분은 주식 시장 그래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래 표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해 보세요



Do you ...	Believe in God?	Love Jesus?	Read your Bible?	Believe the Bible?	Pray?	Witness?	Love your enemies?	Forgive?	Have patience?	Respect others?	Attend Sunday school?
Always											
Sometimes											
Seldom											
Never											

제 151 공과 하나님은 항상 공급해 주신다

성경본문: 마태복음 6:25-34; 열왕기하 4:1-7

요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아멜리아는 아버지가 일하러 가기 위해 트럭을 타자 거실 창문에서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트럭을 운전하며 일하러 가는 모습은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 년이 넘도록 일을 하러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1 년 동안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뿐만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녀는 1 년 전을 회상하였습니다. 아멜리아와 그녀의 세 형제는 2 주간의 가족 여행을 기대하며 학교 후 집으로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그녀가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가 집에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집에 오셨어요? 아버지 어디 아픈 건 아니죠?”

그녀의 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난 아프지 않아.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전할 소식이 있단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회사 인원 감축으로 인해 아빠는 오늘 정리 해고되었단다. 그래서 우리 가족 휴가는 연기되어야 할 것 같구나. 우리는 지금 휴가를 갈 경제적인 여유가 없단다.”

“어, 안 돼요. 아버지!” 아멜리아와 그녀의 형제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행을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미안하구나. 너희들의 실망한 마음은 알지만, 너의 어머니와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는단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기만 하면 된단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새들도 돌보신다고 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단다.”

아멜리아는 실망감으로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가족 여행을 망칠 수 있는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해 여름은 그녀가 결코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밀리아는 돈이 없어서 여름휴가를 떠나거나 수영장에서 수영하거나 YMCA 에서 축구하는 등 일반적인 여름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아멜리아는 그런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많은 돈이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는 생활비를 위해 트럭을 팔아야 했고 외식을 거의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곁에 있어서 좋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식사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으며, 아버지는 가장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멜리아는 곧 하나님이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이 힘든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한번은 식비가 부족했을 때 아멜리아의 막넛동생이 공원에서 20 달러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또 한 번은 알 수 없는 누군가를 통해 필요한 부분이 채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아멜리아가 가장 기억에 나는 사건은 차에 연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오는 길에 차가 멈추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가족들이 교회로 출발하려고 할 때 차 연료 표지기에 연료가 없음이 나타났습니다. 아멜리아는 아버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어떻게 가요? 차에 휘발유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자.” 그녀의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주유할 돈이 없고 차에 연료가 없다는 것도 안단다. 그렇지만, 오늘 주일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믿는단다.”

아멜리아는 말없이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였습니다. 몇 분마다 아멜리아는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연료 표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연료 표지기의 바늘은 없음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차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드리고 집으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멜리아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를 집에 데려다 줄 사람이 있을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집에 가는 도중 차가 멈추면 어떡해요?”

그녀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주실 거야, 아멜리아.”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자동차 엔진이 멈췄습니다. 그때 아멜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적을 행하셨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 주셨습니다!

아멜리아는 그때 1 년 동안의 삶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1 년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고, 그녀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Lesson 151 Activity

DO YOU BELIEVE HIM?

The things that God has promised to His people are missing from the wall below. Find the right block and place the word in the correct place.

these things

clothe

n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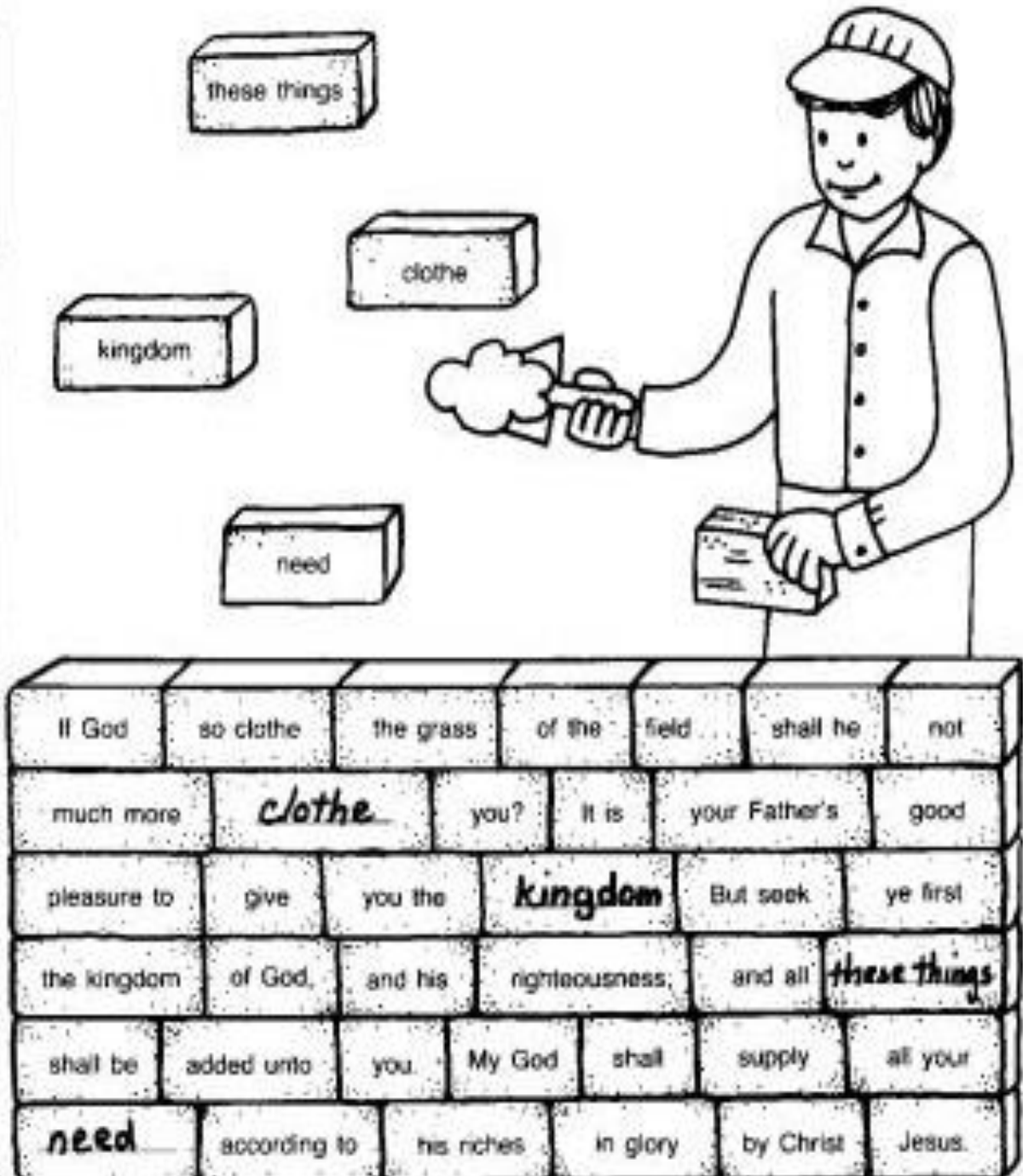
Kingdom



If God	so clothe the	grass	of	the field shall	he not
much more	_____	you?	It is your	Father's	good
pleasure	to give you	the	_____.	But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ll	_____
shall be	added unto	you.	My God	shall	supply all your
_____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by	Christ Jesus	

여러분은 주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아래 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벽돌 속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제 152 공과 판단 착오

성경본문: 마태복음 7:1-5, 15-23; 로마서 2:1-3

요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20)

재원은 이번 레이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지 생각하며 미니어처 모델 레이서의 바퀴를 돌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게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서에는 모터가 없었고, 긴 경사 트랙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차가 무거울수록 더 빨리 달렸습니다. 하지만 차가 너무 무거우면 실격 처리됩니다. 재원은 조심스럽게 차의 무게를 재고 레이서가 최대치인 220g 이 될 때까지 납 무게를 줄였습니다.

카터는 재원 뒤로 다가와 어깨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와, 재원아.” 그가 마지못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너의 레이서 바퀴가 정말 멋져 보여.”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와 멋진데. 그렇지만, 내 차는 절대 못 이기겠지!” 재원은 비웃는 얼굴을 하며 서 있는 엘리아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재원은 엘리아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네가 이길 수도 있지.” 그가 대답했습니다. “시합에서 보자.”

바로 그때, 레이싱 트랙을 세우던 사람 중 한 명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봐,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재원은 그들에게 다가가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 그 남자는 트랙을 제자리에 놓은 후 재원에게 말했습니다. 재원은 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제 그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경주가 시작될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심사위원에게 자신의 레이서를 확인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테이블로 갔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자신의 레이서를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디 보자. 레이서의 무게가 220g 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눈금 다이얼이 230g 을 가리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사위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너의 차는 무게 제한을 초과하여 실격 처리됩니다.” 그는 레이서를 뒤집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차 바닥에 있는 이 두 번째 납은 필요하지 않아 보이네요.”

“하지만 나는... .” 재원이 불쑥 말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갑자기 그는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경주 트랙을 도와주는 동안 누군가가 자신의 경주차에 추를 달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엘리아스가 틀림없는 범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재원은 “너는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어!”라고 비웃던 그의 모습을 기억났습니다. 엘리아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재원은 멍하니 자신의 차가 없는 경주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번에 두 개의 트랙을 질주했습니다. 마침내 카터와 엘리야스 두 대의 차만 남았습니다!

레이스 트랙을 점검하기 위해 짧은 타임아웃이 선언되었습니다. 카터가 엘리야스의 차 옆으로 가서 엘리야스의 차축을 아주 살짝 구부리는 것을 재원이 보았습니다. 카터는 자기 행동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그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만든 차가 다른 차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는 정말 이기고 싶었어요. 재원의 차에 납을 추가해서 재원이가 경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도 제가 한 행동이에요. 죄송합니다.”

재원은 카터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엘리야스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카터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엘리야스가 카터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아! 내 차를 망가뜨리다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재원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엘리야스와는 다르게 반응하였습니다. “카터, 네가 이기고 싶어서 강력한 레이서를 만들고 싶었다면 우리가 함께 레이서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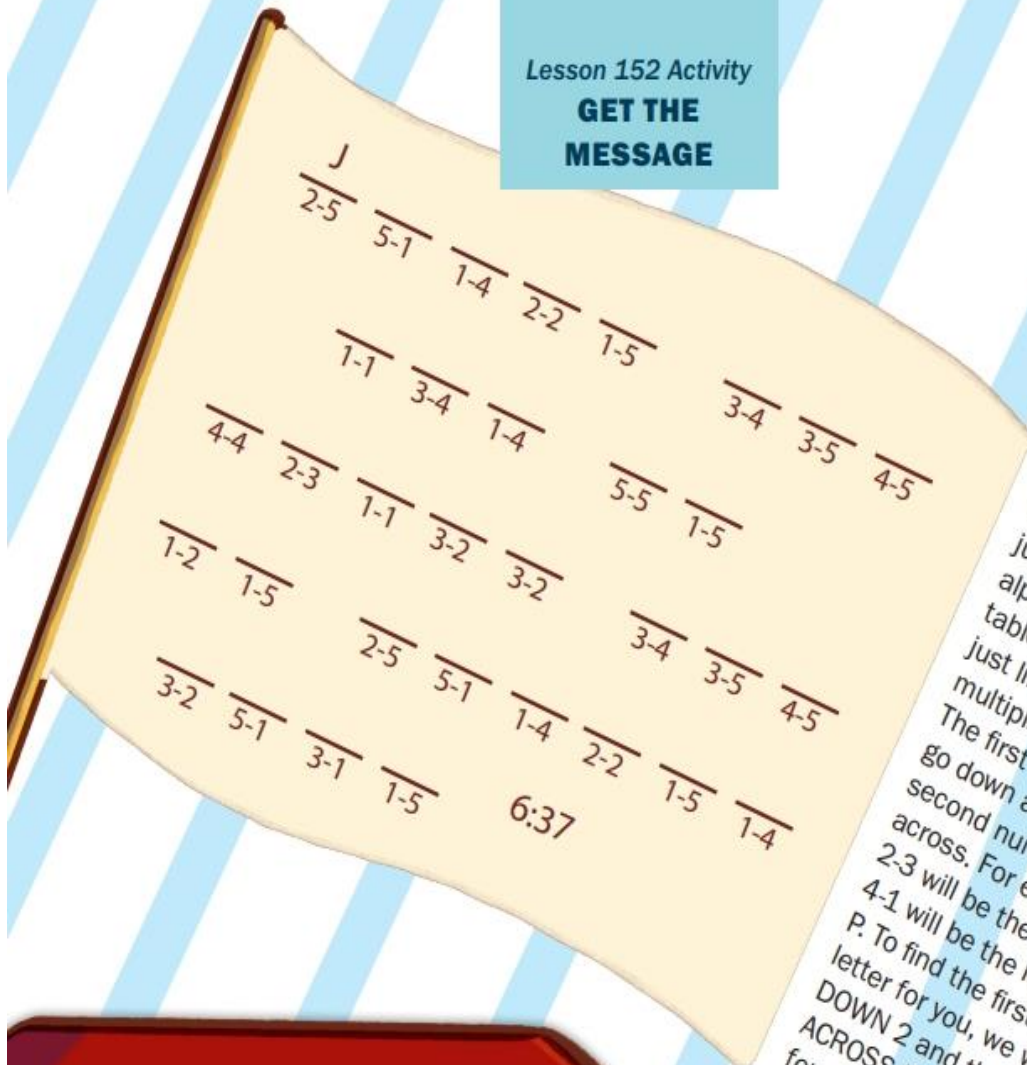
재원의 차분한 말에 엘리야스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화나지 않았어? 카터 때문에 네가 시합에 나가지도 못했잖아!”

“나의 경주차가 갑자기 중량 초과가 되어 황당했어. 실망하기도 했어. 그렇지만, 다른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했어. 그런데, 나는 너에게 사과할 일이 있어. 내 경주차에 추가된 납을 보고 나는 네가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미안해.”

엘리야스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레이스 전에 나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너에게 큰소리쳤었지. 그래서 네가 나를 의심했다고 생각해.”

몇 분 뒤 확성기를 통해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경주 일정이 다음 날로 재조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원은 결국 자신의 차를 경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원은 오늘 모든 것이 망쳐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Lesson 152 Activity
**GET THE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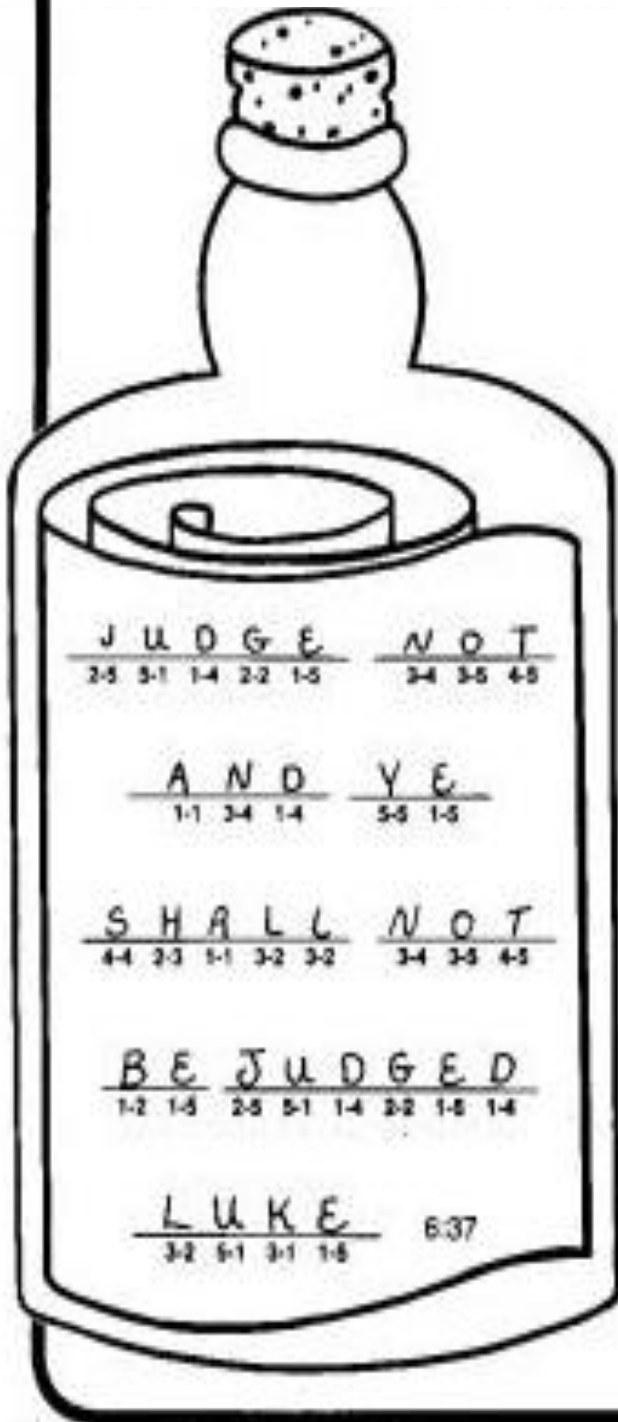


To find the message on the left about judging, use the alphabet multiplication table below. It works just like the regular multiplication table. The first number will go down and the second number will go across. For example, 2-3 will be the H, and 4-1 will be the letter P. To find the first letter for you, we went DOWN 2 and then ACROSS 5 and found J.



암호 풀기

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숫자 암호를 풀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첫 번째 숫자는 세로이고, 두 번째 숫자는 가로입니다. 예를 들어, 2-5 는 세로 2, 가로 5 에 적힌 알파벳 J 입니다.



	1	2	3	4	5
1	A	B	C	D	E
2	F	G	H	I	J
3	K	L	M	N	O
4	P	Q	R	S	T
5	U	V	W	X	Y

제 153 공과 한 가지 중요한 요구 사항

성경본문: 마태복음 7:7-11; 9:27-30; 요한일서 5:14-15

요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22)

"아빠!" 무료 자전거 광고를 컴퓨터에서 본 토이 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남성용 자전거, 자격이 되는 분에게 무료로 드립니다. 제니퍼 레인 438 번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이 자전거를 갖고 싶어요."

토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활기찬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휠체어를 움직이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도 너에게 자전거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를 위해 자전거를 사 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토이는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전거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자전거를 버리고 새 자전거를 사면 정말 좋겠다. 중학생이 되면 자전거가 필요할 텐데,' 그는 다시 광고에 적힌 주소를 보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여기에 한번 가 볼게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요. 다른 사람이 먼저 자전거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요."

토이의 아버지가 손짓으로 허락하자 토이는 문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는 주소가 적힌 곳을 향해 힘차게 달렸습니다. 그곳에 가까이 이르자 그는 걸음을 늦추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무료로 주는 자전거는 좋지 않을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갔을지도 몰라. 아니면 자전거를 내가 받지 못할 수도 있어.'

토이는 주소가 적힌 곳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를 불렀습니다.

"애, 자전거에 관해 물어보러 온 거니?" 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자전거를 가지고 싶어 이 곳에 왔어. 나는 자전거를 살 수 있는 형편이어서 자전거를 받을 수 없다고 했어. 저기 저 아이도 자전거를 받지 못했어. 아저씨가 그에게 자전거를 줄 것 같은지 물었는데, 그가 자전거를 직접 봐야 믿는다고 하자 그 분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고 자전거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대. 너도 한번 얘기해 봐."

그 순간 토비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의 아저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그는 밝은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토비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는 광고를 보고 자전거에 관해 물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몇 살이니?"

“12 살이에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토이는 그 아저씨가 갑자기 슬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토이가 “자전거가 아직 있나요?”라고 묻자 굳었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아직 있어요.”

“너는 자전거가 있나요?”

토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너무 아파서 지금 일을 못 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3 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시고, 제가 돈을 모으고 있는데 자전거 살 돈이 부족해요.”

남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니?”

“토비 킹입니다.”

“음, 토비, 내가 자전거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면 내 말을 믿겠니?”

토비는 활짝 웃었습니다. “네,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내 이름은 팀 라슨이야. 날 따라와요. 내가 자전거를 보여줄게.” 그들은 함께 차고로 걸어가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멋진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라슨 씨는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서 있었습니다. “토비, 이것은 내 아들의 자전거란다. 아들은 이 자전거를 몇 번밖에 타지 못했단다. 아들이 많이 아파서 1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거든. 나와 아내는 자전거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에게 주기로 했어. 우리는 자전거를 살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주기로 했어. 또한 자전거를 받을 거라고 믿는 소년에게 주기로 했단다. 토비, 이제 너에게 새 자전거가 생겼구나. 네가 가지고 가도 좋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길 바란다.”

흥분한 상태로 토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라슨 아저씨,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만세! 그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어!’

앞 창문 근처에 자전거를 조심스럽게 주차한 토비는 아버지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새 자전거를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는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정말 멋지죠. 이 자전거 정말 공짜로 받았어요!” 토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빠. 라슨 아저씨는 왜 나에게 자전거를 줄 거라고 믿는지를 물어보았을까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그의 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대답하였습니다. “아마도 라슨 아저씨는 너에게 믿음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 싶었던 것 같아. 토비, 네가 라슨 아저씨의 말을 믿었잖니.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겠지. 네가 라슨 아저씨의 말을 믿었기에 네가 자전거를 받을 수 있었던 거란다.”

토비는 아버지의 말을 열심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슨 아저씨가 염두에 두었던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 자전거를 탈 때 믿음에 대해 생각할 것 같아요!"

Lesson 153 Activity

**FAITH IS
BELIEVING**



When you pray you can believe Jesus will do what He said He would do. Below are some of Jesus' promises. Draw a line between the two parts of Scripture that go together. If you need help, look up the Bible references that follow each verse.



1. The Lord is nigh unto all them that call upon him,
2. Continue in prayer,
3. Ask, and it shall be given you;
4. If he ask a fish,
5. Men ought always to pray,
6. What man is there of you, whom if his son ask bread,
7. The effectual fervent prayer of a righteous man
8. Then touched he their eyes, saying,
9. Therefore I say unto you, What things soever ye desire,
10.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 seek, and ye shall find. (Matthew 7:7)
- will he give him a stone? (Matthew 7:9)
- According to your faith be it unto you. (Matthew 9:29)
- will he give him a serpent? (Matthew 7:10)
- he heareth us. (1 John 5:14)
- to all that call upon him in truth. (Psalm 145:18)
- when ye pray, believe that ye receive them, and ye shall have them. (Mark 11:24)
- and not to faint. (Luke 18:1)
- and watch in the same with thanksgiving. (Colossians 4:2)
- availeth much. (James 5:16)

**THE SERMON ON
THE MOUNT**

믿음이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1. The Lord is nigh unto all them that call upon him,
2. Continue in prayer,
3. Ask, and it shall be given you;
4. If he ask a fish,
5. Men ought always to pray,
6. What man is there of you, whom if his son ask bread,
7. The effectual fervent prayer of a righteous man
8. Then touched he their eyes, saying,
9. Therefore I say unto you, What things soever ye desire,
10.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 seek, and ye shall find; (Matthew 7:7)
- will he give him a stone? (Matthew 7:9)
- According to your faith be it unto you. (Matthew 9:29)
- will he give him a serpent? (Matthew 7:10)
- he heareth us: (1 John 5:14)
- to all that call upon him in truth. (Psalm 145:18)
- when ye pray, believe that ye receive them, and ye shall have them. (Mark 11:24)
- and not to faint; (Luke 18:1)
- and watch in the same with thanksgiving. (Colossians 4:2)
- availeth much. (James 5:16)

제 154 공과 황금률

성경본문: 마태복음 7:12; 누가복음 6:31; 민수기 12:1-13

요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31)

라일리는 복도를 지나가다 조쉬가 사물함에 책을 넣으려고 책을 가득 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일리는 조쉬에게 다가가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쉬, 에일린을 알지?” 라일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을 조쉬가 들고 있던 책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조쉬는 라일리가 올린 책으로 인해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그가 들고 있던 책들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라일리와 다른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쉬는 벌떡 일어나 책을 사물함에 집어넣고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라일리는 조쉬를 놀릴 또 다른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라일리는 복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애슬턴 선생님이 그들을 향해 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애슬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별점을 주는 선생님이로 유명했습니다. 애슬턴 선생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자, 라일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쉬, 학교에서 껌을 씹으면 안 된다는 걸 너도 알잖아.” 애슬턴 선생님은 라일리가 원하던 대로 조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일리는 그들을 피해 다음 수업 교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라일리는 조쉬를 화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라일리는 구내식당에서 조쉬가 식판을 가지고 갈 때 "우연히" 조쉬와 부딪쳤습니다. 조쉬가 들고 있던 식판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것을 바라보던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쉬는 얼굴이 빨개졌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을 버린 뒤 점심을 먹기 위해 다시 줄을 섰습니다.

라일리는 조쉬에게 무슨 짓을 하든 조쉬는 화를 내지 않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라일리는 조쉬가 화내는 것을 보고 싶어 더 짓궂은 장난을 했습니다. 조쉬는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라일리는 조쉬를 화나게 만들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쉬는 다른 아이들과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조쉬가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쉬는 다른 아이들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라일리는 조쉬를 화나게 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분명히 조쉬를 화나게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학교 근처에 있는 나무 위로 물풍선을 들고 올라가 나뭇가지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조쉬가 학교 버스를 탈 때 이 길로 항상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라일리는 물풍선을 들고 나뭇가지를 잡으려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는 나무에서 떨어졌고, 땅바닥에 누워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에 누워 신음하는

라일리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조쉬였습니다. 조쉬는 다리가 부러진 라일리를 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조쉬는 라일리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서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쉬는 학교를 마치고 라일리가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조쉬가 라일리의 병실로 들어서자, 라일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왜 왔어? 내가 다쳐서 기분 좋지? 난 너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냥 나가!”

조쉬가 말했습니다. “라일리, 나는 너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따지려고 온 건 아니야. 학교에서 오늘 만든 루빅스 큐브와 과제를 가져왔어. 네가 나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아. 그냥 놔두고 갈게. 빨리 낫길 바래!” 조쉬는 병실을 떠났습니다. 라일리는 지금 혼자 남겨진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조쉬는 학교 후 또 병원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라일리가 조쉬에게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했습니다. 그 후 조쉬는 거의 매일 병원에 갔고 학교 숙제와 간식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라일리는 조쉬가 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행동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조쉬가 병원으로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조쉬는 학교에서 그를 찾아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쉬는 항상 웃고 명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일리는 미소를 지으며 조쉬와 말을 하게 되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라일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조쉬가 나를 찾아오는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조쉬가 병원으로 왔을 때 라일리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조쉬, 그냥 나에게 화를 내지 그래? 내가 너에게 잘못된 일이 많은데, 너는 왜 나를 미워하지 않니?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착해?”

조쉬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조쉬는 침대 발치에 재킷을 올려놓고 아무런 대꾸도 없이 라일리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침내 조쉬가 말했습니다. “글쎄, 네가 나의 친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조쉬! 너는 왜 화를 내지 않는 거니?”

조쉬는 냉정하게 라일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라일리, 나는 크리스천이야. 예수님이 몇 년 전에 나를 구원해 주셨어. 예전에 나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셨어. 예수님은 우리가 황금률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뜻이지?” 라일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못되게 군 것을 알지만, 황금률을 생각해서 내가 뭘 하든 항상 나에게 잘해줬던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정말 사과하고 싶어. 미안해.”

조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라일리. 우리 사이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 나도 기뻐.” 조쉬는 성경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구나!

Lesson 154 Activity

PERSON TO PERSON

The Golden Rule tells us how to get along with others. To find out how to do that, use the ruler code and write the correct letter for each measurement given below.

$\frac{5}{2}$ $\frac{2}{4}$ $\frac{4}{2}$ $\frac{5}{2}$ 5 $\frac{3}{4}$ 4 $\frac{3}{2}$ 6 $\frac{5}{2}$ 4
 7 4 $1\frac{1}{2}$ 6 $\frac{3}{2}$ $\frac{3}{4}$ $\frac{5}{2}$ $\frac{3}{4}$ 5 7 $7\frac{1}{2}$
 $\frac{4}{2}$ 7 $7\frac{1}{2}$ $\frac{2}{4}$ $\frac{3}{4}$ $\frac{2}{4}$ $\frac{6}{2}$ 2 6
 4 $1\frac{1}{2}$ 6 $2\frac{1}{2}$ 4 7 4 $\frac{3}{2}$ 6 $\frac{5}{2}$ 4
 5 7 $7\frac{1}{2}$

$\frac{1}{4}$ $\frac{1}{2}$ $\frac{3}{4}$ $\frac{1}{4}$ $\frac{1}{2}$ $\frac{3}{4}$ $\frac{1}{4}$ $\frac{1}{2}$ $\frac{3}{4}$ $\frac{1}{4}$ $\frac{1}{2}$ $\frac{3}{4}$ $\frac{1}{4}$ $\frac{1}{2}$ $\frac{3}{4}$ $\frac{1}{4}$ $\frac{1}{2}$ $\frac{3}{4}$ $\frac{1}{4}$ $\frac{1}{2}$ $\frac{3}{4}$
 1 2 3 4 5 6 7
 B C D F G H J K L M N P Q R S T V W X Y Z A E I O U

사람과의 관계

항금률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래 눈금자 코드를 사용하여 측정치에 알맞은 알파벳을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제 155 공과 잘못된 길

성경본문: 마태복음 7:13-14; 신명기 30:15-20; 시편 1:1-6

요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24)

‘모두가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 같군. 그런데, 내가 아홉 명의 아이를 초대하지 않았나?’ 우드 선생님은 파티에 초대한 아이들의 이름 목록을 꺼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드 선생님은 아홉 명을 파티에 초대했고 그들 모두는 이곳에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두 명이 지금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이브, 유다와 이사야가 어디 있는지 아니? 나는 그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이 보이지 않네. 유다와 이사야가 너희 집 근처에 살고 있지?”

“맞아요, 선생님. 조나와 나는 그들과 함께 이곳으로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길로 여기에 오겠다고 했어요. 그들은 지름길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파티가 시작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들은 들판을 지나 쉬리 로드로 내려가면 우리보다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길을 잃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들이 이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구나. 나는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았고 이곳에 온 모두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그들에게 그 길은 파티 장소로 가는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몇 블록 정도 지나면 쓰레기장이 나올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며 우리를 비웃었어요.”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놓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나요? 그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놓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을 제대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이야기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그들은 더 쉬운 방법이나 지름길을 택함으로써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단 하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성경 본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여러분은 죄를 가지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죄를 가지는 생명의 문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죄가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이고 죄 없이는 사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좁은 길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을 때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천국이 아닌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길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신실하게 여러분을 비춰줄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길 원합니까?

Lesson 155 Activity

**TAKE THE RIGHT
ST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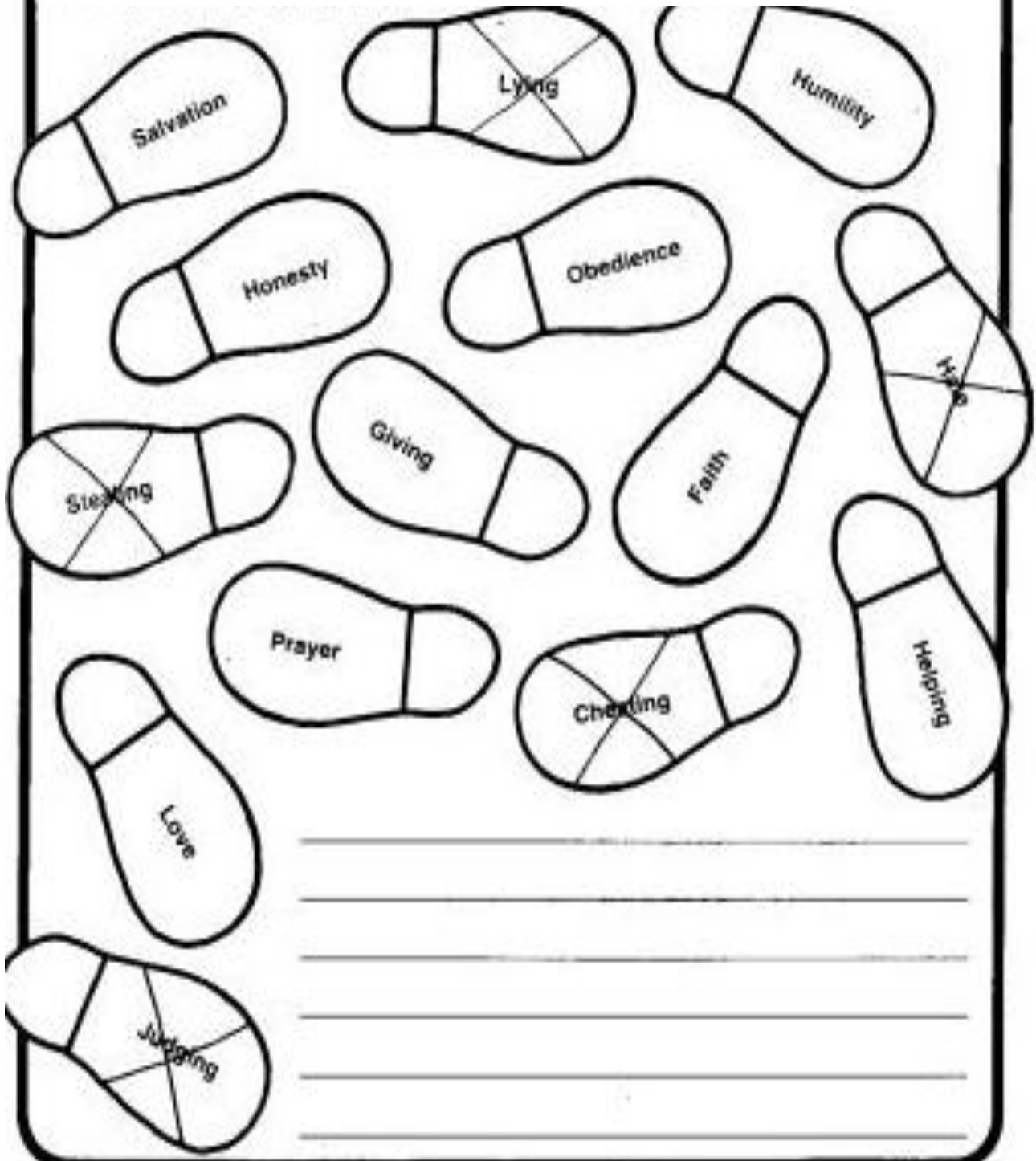


Cross out the footprints you will NOT find on the pathway that leads to Heaven. Choose one of the things that you WILL find on the pathway to Heaven and write, on the lines below, an example of what it is.



바른 길로 걸어가세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발견할 수 없는 발자국을 지우세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발견되는 발자국 하나를 선택한 후 그것에 대한 예를 아래 밑줄에 써 보세요.



제 156 공과 반석 위에 집을 짓다

성경본문: 마태복음 7:24-29; 고린도전서 3:9-15

요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24)

옛날 어느 부유한 집에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요나단과 요셉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아, 너희들은 각자 집을 지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이곳을 떠나도록 하여라. 바닷가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너희들에게 주도록 하마. 그곳에서 너희들이 각자 집을 짓고, 가정을 꾸리며 살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야. 그러나 이것만은 명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집을 지을 때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단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폭풍과 홍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단다. 이제 길을 떠나거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두 형제는 바위 언덕 아래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에 서서 그들 앞에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아들 요셉은 매끄럽고 반짝이는 모래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해안을 찰싹 때리자, 그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그의 형에게로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형, 나는 이제 형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 이 황금빛 모래 위에 집을 짓기로 마음을 정했어.”

“요셉,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지. 아버지가 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하셨잖니.” 요나단은 그들 위에 있는 풀이 우거진 절벽을 가리켰습니다.

요셉은 형의 말을 무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집을 지을 거야.”

“그렇지만 모래는 위험해.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잖아.” 요나단이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우리 함께 튼튼한 집을 건축할 수 있어.”

“나는 형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요셉은 화를 내며 가버렸습니다. 요나단은 천천히 오솔길로 몸을 돌려 큰 바위 언덕을 향해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두 형제는 각자의 집을 지었습니다. 요셉은 해변에 거대한 저택을 세웠습니다. 큰 저택은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고, 실내 수영장과 큰 응접실, 방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높은 바위 위에 헛간과 마구간이 있는 훌륭한 집을 지었습니다.

요셉은 성대한 잔치와 파티를 열어 친구들을 자주 초대했지만, 요나단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예배당을 짓는 등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오후, 요나단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전에 본 적이 없는 먹구름이 지평선에 모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해변에 있는 요셉의 저택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한편, 요셉도 검은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먹구름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이상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심해! 큰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해라!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폭풍과 홍수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난 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요셉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걱정을 밀어내려고 애쓰면서 속으로 혼자 생각했습니다.

한밤중에 폭풍이 몰아쳤고 창문에 부딪히는 큰 파도 소리로 인해 요셉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응접실의 기둥들이 하나둘 흔들렸고 사나운 바람 소리가 밖에서 비명을 지르는 듯 들려왔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저택에서 탈출하기 위해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으로 달려가는 동안 집의 바닥은 튼튼하지 않아 점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고요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파도가 사방에서 밀려 들어왔습니다. 뒷문을 밀고 나가려던 그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물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는 반석 위에 지은 요나단의 집을 순간 바라보았습니다. 요나단의 집은 아무런 흔들림 없이 그곳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그의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물이 그의 머리 위를 덮치자, 숨이 막혔습니다.

요셉은 멀리서 들려오는 바닷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요셉은 침대에 누워있었고, 침대 옆에 요나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셉, 너를 폭풍 속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단다. 우리는 네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모두 네 주위에 모여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고 너를 살려 주셨어.”

“형님.” 요셉이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과 형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두 분은 나에게 경고를 했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집도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 요셉, 하나님이 네 생명을 구해 주셨잖니. 요셉아. 네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야. 반석 위에 너의 집을 다시 지으면 된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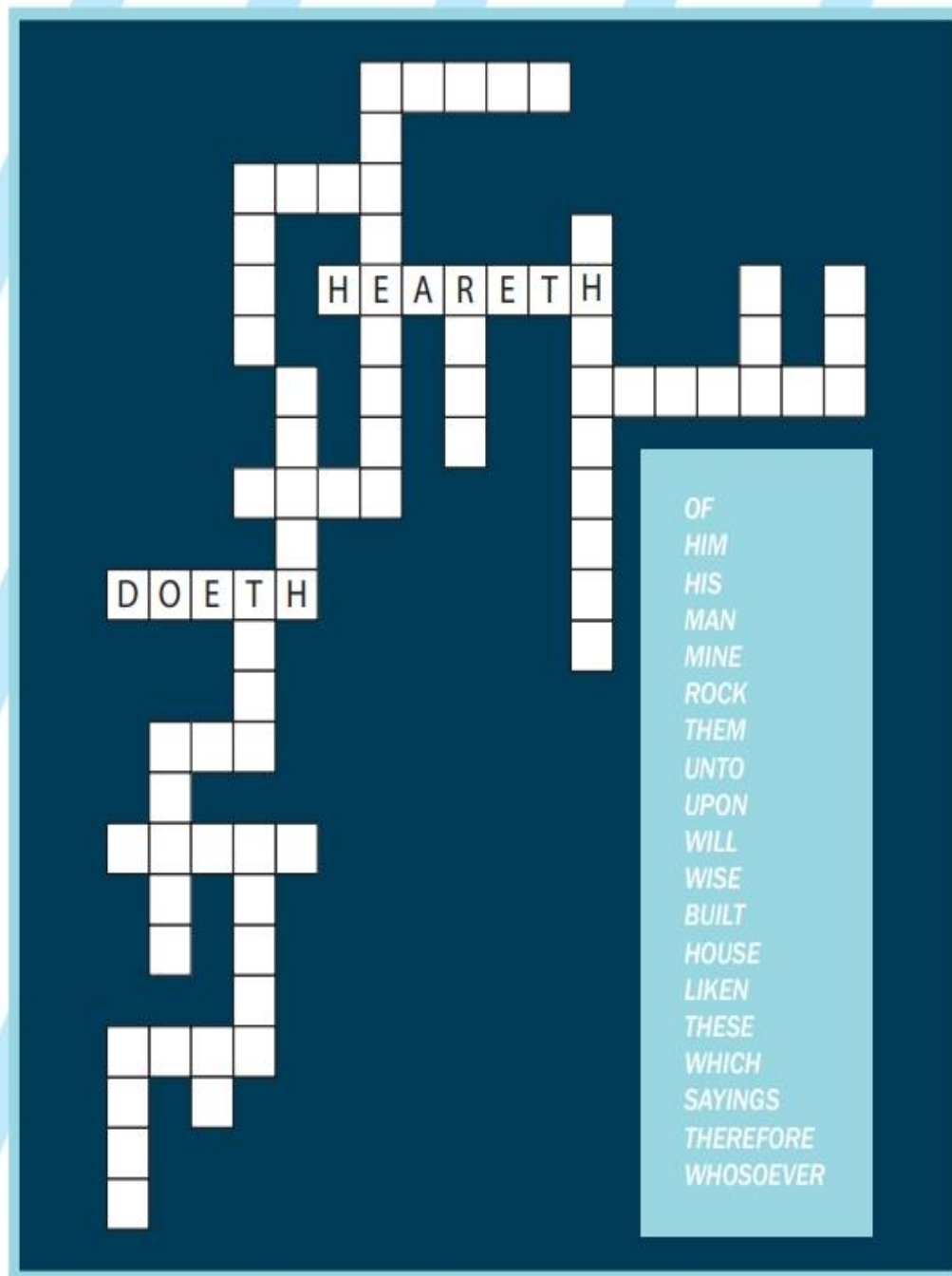
요나단의 부드러운 말은 요셉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 폭풍과 고난의 홍수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기초로 하여 굳게 설 것입니다.

Lesson 156 Activity

**WHAT AM I
DOING?**

We have all heard what God wants us to do but it is important that we do what He says. The words listed below are from the key verse and will fit into the puzzle. Where is your house built?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단어로 퍼즐을 완성해
보세요. 우리는 집을 어디에 지어야 합니까?

